

#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

## ■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

□ 일 시 : 2014. 7. 7(월) 10:00 ~ 17:40

□ 안 건

1.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
2.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

□ 장 소 :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: 7名(김금용, 김경선, 신은호, 최석정, 손철운, 이도형, 황인성 의원)

※ 참석공무원 :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등 40명

인천교통공사 사장 오홍식 등 30명

□ 부의안건

1.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

○ 질의 및 답변

- 구도심은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하는데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는 것에 대하여? (황인성 의원)  
⇒ 재원(30억원)이 부족하고 구도심이 개발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
- 주차장 건설 예산이 너무 적음. 최소 100억 단위로 확보해주시기 바람. (황인성 의원)
- 강화는 인천에서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, 기존 해안도로를 통한 접근이 현재는 불편한 것에 대하여 (황인성 의원)  
⇒ 김포시에서 개설해야 하는 구간이 있으나 김포시에서는 긴급한 사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어 협의가 필요함.
- 요즘 안전문제가 화두인데, BRT는 좌석제인가? 입석도 가능한 것인가? (김경선 의원)  
⇒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석도 가능함.
- 터미널~연안부두까지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할 수는 없는지? (김경선 의원)  
⇒ 교통수요를 분석해서 노선 조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.
- AG 이전에 주요도로의 공사는 완료가 가능한 것인가? (김경선 의원)  
⇒ 최대한 AG이전에 관련된 도로공사를 완료하거나 임시개통 등을 통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.

- 대부도~영흥도 도로공사 이후 오히려 통행이 불편함. (김경선 의원)  
⇒ 행정구역인 경기도 안산시와 협의하겠음.
- CCTV설치시 개당 소요금액은? (손철운 의원)  
⇒ 700만원을 약간 상회함.
- 현재 설치계획을 보면 총 66대, 구별 약6대가 되는데 주민 요구에 비하여 너무 적은 수량 아닌가? (손철운 의원)  
⇒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며, 수량은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음.
- 도시철도 1호선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는데 설치기준은 무엇인가? (손철운 의원)  
⇒ 현재 부평역과 신연수역 인근엔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이 있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임.
- 갈산역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현장 방문을 통해 설치를 고려해주기 바람. (손철운 의원)  
⇒ 이미 용역을 통하여 각 역별로 여건을 조사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갈산역은 2016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
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 실제로 구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시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구를 지도해주기 바람. (손철운 의원)  
⇒ 가이드라인은 있지만,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.
- 문학터널 재구조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최초에 그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타까움. 따라서, 최초 협약 체결 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. (손철운 의원)  
⇒ 당시의 정책방향, 재정상황,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판단됨.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음.
- 자기부상열차의 개통지연 사유는? (신은호 의원)  
⇒ 국내 실용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다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연되고 있음.
- 인천발 KTX 노선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되어있는데 국비확보 가능성은?  
⇒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.
- KTX의 주행 속도는 얼마인가? (신은호 의원)  
⇒ 보통 KTX는 300Km이상 가능하지만, 수인선 구간은 다소 낮은 속도로 주행하게 될 것임.
- 주정차 위반 단속내용을 문자 안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함. (신은호 의원)
- 민자사업 추진 시 통행량 예측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함. (신은호 의원)

⇒ 잘 알겠음.

- AG 주차장 17,000대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? (최석정 의원)

⇒ 여러 조사를 통하여 주차수요가 9,000대로 예측되었으나,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을 감안하여 더 확보한 것임.

- 경명대로 지하차도 및 북인천IC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공촌사거리 교통대란이 예측되는데? (최석정 의원)

⇒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촌사거리를 동·서 방향으로 고가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으나 장기적인 사업이며, 경서택지쪽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셔틀버스를 탁옥로로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.

- 셔틀버스 운행거리는? (최석정 의원)

⇒ 다른 곳은 모두 인근에 있으나, 동암역과 동인천역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운행구간이 긴 것이 사실임.

- 셔틀버스 400대를 쭉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길이가 엄청남. 400대를 모두 운행시킬 때 운행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? (최석정 의원)

⇒ 면밀히 준비하겠음.

- 인천발 KTX의 효과에 대해서? (이도형 의원)

⇒ 환승에 대한 불편함이 개선되고, 시간적으로도 15분 정도 단축효과가 있음.

- 수요조사한 것이 있는지? (이도형 의원)

⇒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사한 10,000명/일 자료가 있음.

- 추가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? (이도형 의원)

⇒ 차량기지, 차량구입비, 전기, 신호, 통신 사업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2,900억원 정도 예측됨.

- 추가사업비가 본사업비보다 큰 것 아닌가? 예비타당성 조사 시 B/C가 1을 넘을 수 있겠는가? (이도형 의원)

⇒ 과거에 0.83정도 나온 적이 있으며, 0.7이상만 나오면 AHP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B/C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됨.

-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임. 공항철도 KTX가 예산투입대비 시간절감은 미미하여 적절치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으니 참고하기 바람. (이도형 의원)

⇒ 잘 알겠음.

- 기존 수인선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해주기 바람. KTX가 수인선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임. (이도형 의원)

⇒ 방음벽 공사 및 저속 운행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.

-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당초 B/C가 0.56으로 경제적 타당

성이 부족했는데? (김금용 의원)

⇒ 당초 B/C 조사 때 반영되지 못한 씨티타워 등의 수요가 있으며, 정거장 수를 줄이는 등 B/C를 높이는 방안이 있음. 또한, B/C가 1이 안되더라도 AHP 등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.

- 청라 국제도시를 위해서는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? (김금용 의원)

⇒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음.

- 제3연륙교는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것인가? (김금용 의원)

⇒ 경제청과 도로과가 함께 추진하고 있음.

- 국무조정 결과가 나왔나? (김금용 의원)

⇒ 아직 진행중이며, 손실부담 규모와 주체가 쟁점사항으로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음.

- 다른 대안은 있는가? (김금용 의원)

⇒ LH와의 문제는 경제청에서, 중앙정부 협의는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- 문학터널 협약체결한 배경은 무엇인가? (김금용 의원)

⇒ 민자사업 추진 당시 시의 경험부족도 있으며, 민자사업자의 고의적인 통행량 부풀리기 등 악의적인 수단에 휘둘린 것으로 판단됨.

- 현재까지 문학터널 재정지원금이 얼마인가? (김금용 의원)

⇒ 674억 정도임. 2011~2013년도분 재정지원금은 현재 미지급하고 있음.

- 소송 진행상황은? (김금용 의원)

⇒ 너무 높은 수익률과 물가변동을 적용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음.

- 군인공제회와 협이가 잘 안되고 있나? (김금용 의원)

⇒ 군인공제회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.

- 인천발 KTX의 사업효과는?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? (황인성 의원)

⇒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, 실현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.

## 2.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

### ○ 질의 및 답변

- 희망인천준비단에서는 월미은하레일을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통공사에서 레일바이크로 전환하여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? (황인성 의원)

- 시속 20Km로 운행하는 것인데 보완하여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나? 월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았나? 처음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얼마나 교통공사에서 노력하였는지? (황인성 의원)

- ⇒ 정상 운행하지 못함에 대하여 죄송하며, 월미은하레일에 대하여 아직은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.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검증결과 38개 항목에 대하여 보수·보강 후 성능을 확인한 후 운행이 가능했었던 상황임. 시공사인 한신과 협의하였지만 성능 담보 불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를 결렬되었음.
- 시공사 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, 지역 주민들은 모노레일을 원하고 있음. (황인성 의원)
- 모노레일 개통이 현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? (이도형 의원)
  - ⇒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.
- 한신에서 보수 후 3년간 실비정산 방식으로 운영하여 안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? (이도형 의원)
  - ⇒ 사전에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, 한신측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음.
- 현 시점에서 월미은하레일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? (이도형 의원)
  - ⇒ 정당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임.
- 현시점에서의 월미은하레일 조사 특위는 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될 우려가 있음. (이도형 의원)
- 당초 구성품 시험기관이었던 철도기술 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결과를 100%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? (김금용 의원)
  - ⇒ 구성품 시험과 전체적인 안전성 검증은 내용이 많이 상이함.
- 당초 월미은하레일은 승객 수송용이 아닌 관광용 아닌가? (김금용 의원)
  - ⇒ 교통과 관광을 병행하는 목적임.
- 평균 속도가 15~20km이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 아닌가? (김금용 의원)
  - ⇒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임.
- 6.4 지방선거를 앞두고 레일바이크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? (김금용 의원)
  - ⇒ 안전성 검증, 공청회 등을 거쳐 2013년 12월에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.
-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은 6.4 지방선거 이후에 되었으면 좋았을 것. 운영비, 수익료, 사업비 등을 합쳐 우선협상자가 30억원/년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? 가능하다고 보는지? (김금용 의원)
  - ⇒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사업성을 분석했다고 생각함.
- 월미은하레일은 검증만 하다가 지난 4년간 방치되어 온 것 아닌가? 중구 주민들에게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숙원 사업인데 기다리기만 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? (손철운 의원)
- 주민의 재산을 내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행정도 소통하고 위민행정을 했어

야 ...그랬으면 4년 동안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고 4년 동안 한 것이 없지 않는가? 본 의원은 월미 은하레일이 인천의 명물로 태어나서 중구의 관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 (손철운 의원)

- 한신은 계약상대자로서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?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? (김경선 의원)

⇒ 한신과의 협의가 결렬된 가장 큰 쟁점은 보수 후의 성능 담보 문제였음. 한신은 보수는 하겠지만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.

- 한신 측이 지난 시의원 현장시찰 당시 보수하겠다고 했는데...(김경선 의원)

⇒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음.

- 7월4일 현장시찰 당시 중구청장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? (김경선 의원)

⇒ 횡설수설이라고 생각함.

- 운행속도를 낮춘다면 보완하여 운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? (최석정 의원)

- 3년간 운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한신 측의 주장에 대하여? (최석정 의원)

⇒ 구두 약속이 아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문서화할 것을 원했음.

- 지금이라도 한신측이 하자보수를 문서화한다면 한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? (최석정 의원)

⇒ 그럴 수는 없음.

- 모노레일을 원하는 중구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? (최석정 의원)

⇒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모노레일을 현 상태로 만든 한신 측에 보수를 맡기는 것 보다는 제대로된 안전한 모노레일을 원할 것임.

- 월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며 주민들은 당초계획대로 운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. (최석정 의원)

⇒ 한신은 보수할 기술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함.

- 월미은하레일이 현재까지 운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? (신은호 의원)

⇒ 공사가 부실했고,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았음.

-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성과주의에 빠지면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. (신은호 의원)

- 객관적 조사가 담보된다면 특위에 대하여 찬성하지만,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위활동을 하게 된다면 정쟁 밖에 안된다고 생각함. (신은호 의원)

- 월미은하레일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접근은 배제해야 할 것임. 지역

주민들의 바람은 안정성을 확보한 후 하루 속히 개통해달라는 것임(김금용 의원)

일 시	차수	심 사 안 건	비 고
7.8(화)	3	1.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2.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	도시계획국 인천도시공사

보고자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